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7, No. 1, 2015. 2, pp. 239-261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 채 원
(숭실대학교)

[요 약]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새로이 사회관계망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므로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녀양육과정상의 어려움과 관련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참여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정내 사회자본과 가정외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경기교육복지패널 I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459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해 매개변인인 양육참여를 제외한 주효과모형과 투입한 매개효과모형을 비교하고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수행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외 가정내 사회자본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양육참여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참여가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모형에서 가정외, 가정내 사회자본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참여가 이들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자본, 양육참여,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분석

1. 서론

한국사회내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약 75만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이와같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8-B00044).

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 이주민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살펴볼 때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구축된 사회적 관계망과 이러한 관계망에서 개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 이민자는 개인이 평생동안 구축해왔던 사회관계망에서 떨어져 나와 이주사회 내에서 다시 새로이 사회관계망을 구축해야만 하는 과업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주사회의 수용성이 낮으면 새로운 사회관계망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자본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자본은 개인이 한 사회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어떠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이주민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개념은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양육경험을 살펴보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모의 사회자본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활용되며 자녀의 학업성취나 심리사회적 산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봉주 외, 2010; 전경하·송순, 2013).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학령기 자녀교육 지원에 대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이민경·김경근, 2010), 이러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사회자본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교육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자본이 충분히 있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자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낯선 나라로 이주해 와서 낯선 문화적 배경을 가진 배우자와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배우자와 여성결혼이민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자 낯선 나라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된다(김지현 외, 2009). 즉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자신의 중요한 지지원이 되고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강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윤명숙·이해경, 2011). 이런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자녀의 성공적인 양육과 성장은 더욱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열의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정 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족의 지원이 부족할 때가 많고(이은하, 2010), 가정 외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의 교육제도나 문화적 관행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줄 자원이 부족할 때가 많다(이채원 외, 2013). 이러한 환경적 조건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데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모역할 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현선 외, 2012).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있어 어머니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며 자신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적 환경의

조성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가지는 위상과 사회자본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자녀양육 효능감과 관련시킨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형성하는 사회자본이 자녀에 대한 적극적 양육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양육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을 가족내 관계와 가족외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자본이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문헌검토

1) 사회자본과 자녀교육

사회자본은 여러 연구에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사회적 관계의 구조 내에서 특정 목표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김동윤·오소현 역, 2008). 따라서 개인의 사회자본의 양이나 수준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그 관계망에 속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Glanville and Bienenstock, 2009). 이러한 사회자본을 교육과 연결시켜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Bourdieu와 Coleman을 들 수 있다. Bourdieu는 사회자본을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제도화된 공식적 사회적 연결망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잠재적 자원으로 본 반면, Coleman은 목표달성을 위한 촉진적 활동을 위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자본이 형성된다고 보았다(나금실, 2011: 437).

특히 Coleman(1988)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해서 사회자본을 다음세대 인적자본 형성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자본과 독립적으로 사회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자본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가족 내 사회자본과, 부모들간 사회적 관계 혹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부모들간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회자본의 유형들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oleman의 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는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자녀세대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많은 연구들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Coleman의 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들은 특히 가정내 사회자본이 가정외 사회자본에 비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안우환, 2006; 신원영·강현아, 2008; 이봉주 외, 2010).

그런데 연구목적에 따라 사회자본의 개념이 다양하게 조작화됨으로써 실제 개별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자본의 측정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Oseguera외(2011)의 연구는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서, 사회자본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들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인종집단 고등학생들의 학업격차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자본 선행요건들은 가족구성, 부모와 학교의 상호작용,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등으로 조작화되었다. 반면 안우환과 김경식(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창출되어 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시간의 투입'이라는 형태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모와 학생 사이의 상호신뢰 및 유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학생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나타나도록 도와주며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한 학생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 학교참여, 훈육 등을 사회자본으로 정의한 연구들도 있다(안우환, 2006; 양숙경·문혁준, 2009).

이와 같이 자녀교육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회자본의 연구들에서도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가족관계 혹은 가족밖의 다른 사회체계나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주로 접촉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와 같은 가정내 사회자본과 학교교사나 학부모활동, 혹은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외 사회자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참여와 양육효능감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특히 한국생활적응초기의 어린 아동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보고한 연구들이 많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경험과 어려움은 양육주체에서의 소외,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의 부족, 그리고 양육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타협으로 요약된다(김지현 외, 2009). 즉 한국생활의 초기단계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 구사력의 제한과 문화적 이질성,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의 이유로 자녀양육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같은 가족들이 주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며 한국적인 양육방식 혹은 시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고수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은 양육주체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보다 익숙한 방식으로 자녀양육을 하고자 해도 이러한 방식이 가족내에서 존중받지 못하며,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가족내 갈등이 야기되면서 결국 여성결혼이민자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적극적인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족의 지지가 부족하거나(이은하, 2010)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지식의 부족, 접근성의 제한,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양육과정상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는 내국인 어머니에 비해 더 높고 양육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9; 김현경, 2009).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낮은 효능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나 문화적응유형 등으로 설명된 바 있는데, 김도희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양육효능감은 과잉반응과 방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적 지지가 미약하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져 양육효능감이 낮아지게 되며 결국 과잉반응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에 이른다는 것이다(김도희 외, 2007). 문화적응스트레스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모로서의 만족감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적영향을 미치며(최명선·곽민정, 2008; 강인옥,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은·이채원, 20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방식의 문화적 차이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녀양육과정상의 가족갈등은 결국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양육에서 소외되거나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하여(김지현 외, 2009; 김현경, 2009) 양육효능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령기 자녀의 양육경험에 초점을 둔 송미경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높지만 언어 때문에 자녀를 돕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에 가기도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도 다른 한국 학부모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송미경 외, 2007).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함께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의 학습지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물리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화를 강요하는 한국사회' 안에서 '자녀의 한국문화 적응 성공이 적응의 완성'이라고 보고(박진영, 2009)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 한국어 구사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및 문화적 규범이나 기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정에서 발견되는 양상을 요약해 보면, 결혼이주초기와 영아기 자녀양육기가 맞물리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국적 양육방식을 강조하여 양육소외 및 양육스트레스가 극심해지다가(김지현 외, 2009),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가족의 간섭은 상대적으로 적어지지만 교육지원 역시 부족하여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남편이나 주변의 지지체계가 자녀교육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좀 낫지만, 통상 타 학부모의 텃세 등을 경험하게 되고 교사 역시 편견을 가지고 학부모를 대하게 되면서 자녀교육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송미경 외, 2007).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교육에 있어 한국의 교육열과 경쟁적 학습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느끼면서도 자녀가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이채원 외, 2013) 자신의 자녀양육방식 자체에 대한 효능감이 낮지 않아도 그러한 양육방식이 자녀의 한국사회통합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부모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특정행위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의 효능감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사회내에서 자녀의 성공적 적응을 가

져올 수 있는 부모역할전반에 대한 효능감으로 볼 필요가 있다.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과적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효능감의 원천은 과거 유사한 영역에서 성취경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높아진다(이채원외 역, 2014).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새로운 이주사회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양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대체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정보 등은 부족하기 때문에,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양육참여적 행동을 가져오기보다는 참여행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과 양육참여행동에 대한 질적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양시내 외(2013)의 연구는 자녀양육경험을 심리사회적 측면, 학습적 측면, 그리고 정체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학습적인 측면에서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적절한 교육적 환경의 제공이 주제로 출현하였다. 반면 앞서 이야기한 문화적 맥락과 연관해서 '차별이나 무시로 인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 당당한 모습 보여주기', '한국인 또래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며 친구들과 사귈 기회 만들기'등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정체성의 측면에서 '한국인으로 자라나기 바라며 어머니가 먼저 한국인 되기'와 '어머니 나라에 친숙해지기 위하여 모국어와 모국문화 가르치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효능감에도 불구하고 양육참여적 행동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는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과 성공적인 발달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양육참여와 관련해서 특히 시간적 차원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서덕희(2014)의 연구는 자녀교육의 경험을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9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6년간 종단적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녀의 영유아기, 초등전기, 초등후기, 중고등의 단계별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르게 나타나며 어머니의 학력에 의해서도 자녀교육관이나 양육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렇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적 상황적 배경이 자녀양육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오만석(2011)의 연구에도 나타난다. 심층면접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관련된 문제를 탐색한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자녀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된 가정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지원 및 적절한 학습지원, 그리고 학교에서의 다문화자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 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양적으로 분석한 나동석과 박종인(2008)의 연구는 일반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인 참여양육행동을 구분하여 '아이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 아이와 자주 이야기하고 도움을 준다', '아이의 발달에 유익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한다' 등의 적극적인 참여양육행동이 배우자의 지지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면접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교사 및 이주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욕구와 표출양상을 살펴본 이민경과 김경근(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주가정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최하층에 속하며 한국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문화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 기대와 지원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의 자녀교육 욕구와 지원은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과정에서 매우 핵심적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이주자와 주변인이라는 사회문화적 제약에 대한 극복기제로서도 작동되고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한국사회적응과 통합을 지향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양육참여의 의지가 있다. 그러나 동화주의적 시선이 강한 한국의 사회환경에서 주변인들의 차별적 시선이나 편견, 한국어 구사력의 제한, 가족이나 외부 지지체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양육참여행동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가족내 가족외 사회자본이 잘 형성되는 경우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통해 양육효능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구사능력, 학력 등의 개인적 요인과 배우자의 지지나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과 같은 가족내 사회자본요인,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들과의 접촉경험과 같은 가족외 사회자본요인 등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앞서 제시된 사회자본의 개념을 보면,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 이주자들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하는 데에 불리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축적해온 사회적 관계망에서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며,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새로운 관계망의 구축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의 새로운 구성원이 구축하는 사회적 연결망에 초점을 둔 Morrison(2002)의 연구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 특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결망이 이들의 조직생활 사회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한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새로이 담당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화 과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남성과 결혼하게 됨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의 사회자본은 더욱더 불리한 조건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의 이민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단초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민부모들은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점하여 주류체계로부터 소외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주류사회의 교육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Oseguera et al., 2011)는 연구결과는 이민가족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부모에게서 얻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민가족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 유지되며 활용되는지를 연구한 Zontini(2010)는 이탈리안 가족과 같이 가족 및 민족적 연대감이 강한 집단에서 그러한 가족적 민족적 연결망의 참여가 세대별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자본의 논의는 개인의 관계망에 대한 감정과 정체성,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야 연결망의 형성 및 유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ancee(2010)는 이주민의 사회자본을 살펴보는 데 있어 유대 기능과 교량기능의 두 가지를 구분하였다. 유대란 두터운 신뢰를 특성으로 하는 밀집된 연결망이며 가족내 신뢰 및 가족유대의 강도로 측정되었다. 반면 교량이란 얇은 신뢰로 가로지르는 연결망으로서 민족간 접촉 및 외향성으로 측정되었다. 네덜란드의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살펴본 이 연구는 교량적 연결망이 고용 및 소득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가족 외의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내 관계에서 나타나는 유대는 심리적 정서적 지지의 기능이 있는 반면 가족외의 관계는 정보적 지지의 기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사회참여적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외 사회자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Ryan 외(2008)의 연구는 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살펴보는 데 있어 시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결망은 매우 유동적이고 사람들의 욕구와 상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함께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새로 정착하게 된 이민자가 필요로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연결망과 환경에 보다 익숙해진 다음에 수립되는 연결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은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를 가질 수 있고 초국가적 형태를 띠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민가족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들은 이민가족의 사회자본을 살펴볼 때에 사회자본의 기능이나 유형, 그리고 이민자의 주류사회 거주기간이나 세대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혹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사회자본의 개념규정도 연구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용균(2007)의 연구는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혼용하여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비교적 빠르게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지만 사회활동은 상당히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가족 및 친구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의 네트워크는 같은 출신국 여성들과의 긴밀한 소공동체의 형태를 띠게 되고 지역사회내 출신국가별 소공동체간의 연결로 지역차원의 민족문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남편과 시댁의 관심과 협조는 이주여성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주여성의 개인적 의지와 태도 역시 사회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노연희 외(2012)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연결망과 받는 연결망의 차이에 주목하고 분석하였는데,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연계를 가질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인숙과 김선혜(2011)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고용은 인적자본 변수들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오히려 모국인 모임이나 지역주민 모임과 같은 사회자본은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경과 이정향(2014)의 연구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주로 참여하는 근린공동체 즉 학교, 성당 등에서 생성되는 사회자본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자

본의 양은 성당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체의 동질성이 높으면 사회자본의 관계적 측면이, 공동체의 결속력이 높으면 사회자본의 규범적 측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연구는 사회자본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성격이나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많다. 한편 몇몇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다른 변수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주재와 김순규(2010)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망은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연구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다문화교육이나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의 형성 및 사회지지 프로그램이 못지않게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희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즉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망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관계망 크기와 월소득, 가족의 지원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은 반면 이웃의 지원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박선민과 김태현(2013)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을 그들이 인지하는 가족건강성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는데, 사회자본의 하위영역을 신뢰, 관계망, 참여도로 보았을 때 개인적 신뢰가 가족건강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관계망은 누구하고의 관계망인가에 따라 엇갈린 결과가 나타났는데, 가족이나 친척과의 도움요청이나 상담이 활발할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반면 본국친구들과의 상담 등은 가족건강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들의 사회자본과 양육참여나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특히 학교현장과 관련한 부모의 사회자본이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다(Cheung et al., 2008). 이 연구에 의하면 학교의 학부모회에 참여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는 부모, 그리고 학부모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부모들이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모들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자본이 자녀산물 뿐만 아니라 양육주체인 어머니의 적응산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국내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을 자녀양육과 관련시킨 연구는 박소은과 이채원(2012)의 연구가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을 사회자본이 완충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특히 자녀의 학교관련 사회자본과 가족내 사회자본은 이들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을 가족내 사회자본과 가족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회자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을 양육참여가 매개할 것으로 보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1년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5,6학년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459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경기교육복지패널의 1차년도 자료이다. 이 자료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동의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전문 면접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의 6개 국가 언어로 번역되어 제시되었다.

2) 변수의 측정

(1)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참여는 박현선 외(2012)의 연구에서 활용된 양육참여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자녀의 교육관련 결정 시 본인의 의견 반영 정도'와 '자녀 교육에 주는 도움의 정도',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키우지 못한다(역문항)'의 3개 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범위는 3점에서 1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가족외 사회자본

가족외 사회자본은 Manuel(2003)이 구성한 사회자본 척도를 축약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자녀의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회자본 문항으로 총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외 사회자본을 측정하므로 '학교교사와의 관계',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학교의 학부모활동에의 참여'의 3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영역은 포함하지 않았다. 패널자료에서 각 하위영역은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46으로 나타났다.

(3) 가족내 사회자본

가족내 사회자본은 Hudson(1997)의 Index of Family Relation(IFR)의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남편에 대한 만족, 가족성원들의 관계, 가족의 행복감 등을 묻는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4점에서 16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이며 가족내 사회자본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9로 나타났다.

(4)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신숙재(1997)의 양육효능감 척도 중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 문항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5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학력, 자녀의 연령, 동거자녀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각각의 통제변인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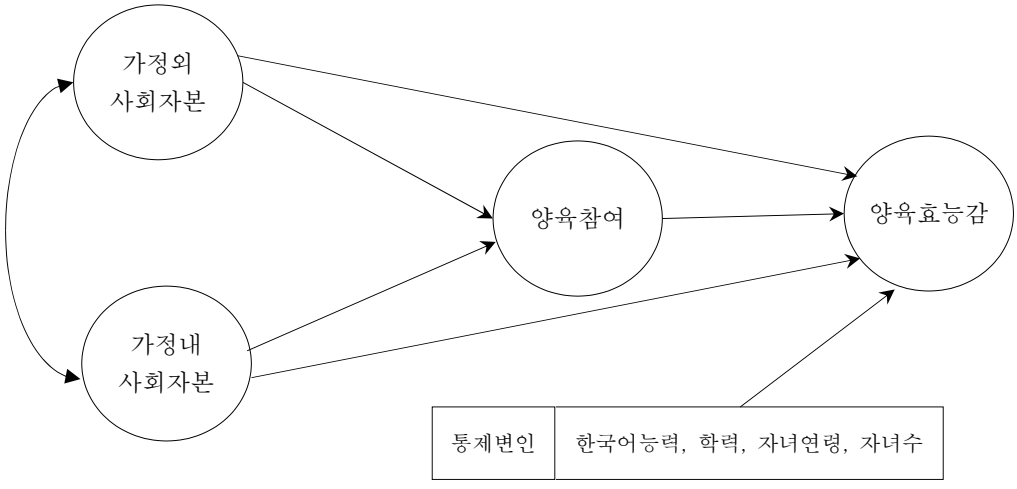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쓰기, 읽기의 3개 영역 각각에 대하여 얼마나 잘하는지를 1점에서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3개 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900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년수를 자기기입하도록 하였고 자녀의 연령은 만나이로 측정하였으며, 동거자녀수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의 수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가정내외의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참여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정내, 가정외 사회자본 각각에서 양육참여와 양육효능감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하였고, 양육참여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한국어 능력, 학력, 자녀의 연령과 동거자녀수가 통제변수로 투입되어 양육효능감으로의 경로가 설정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결측은 FIML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CFI, TLI, RMSEA를 통해 검증하였다.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변인인 양육참여를 제외한 주효과모형을 설정하여 매개효과모형과 비교하였고,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변인간 효과분해를 수행하였으며 효과의 유의도를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59)

변수	N		%	
결혼 전 국적				
중국	109		23.7	
일본	226		49.2	
필리핀	86		18.7	
베트남	18		4.0	
몽골	7		1.6	
태국	13		2.8	
	M	SD	최소값	최대값
연령	41.85	5.37	22.0	58.0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	11.43	.64	10	14
자녀의 수	2.39	.95	1	6
한국거주기간(년)	13.45	3.63	.25	21.59
모의 학력(년)	13.15	2.33	4	24.00
한국어 능력	3.46	.80	1.33	5.00

조사대상자로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평균연령은 42세로,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약 13년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연령은 평균 11세였다. 결혼전 국적은 약 반수 정도가 일본으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자녀수는 1명에서 6명까지의 분포를 나타냈고 평균

2명 내외였으며, 교육년수로 측정한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평균 13년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인간 상관관계

모형에 투입된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가정외 사회자본과 가정내 사회자본은 모두 양육효능감 및 양육참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정내 외의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변인 간의 상관관계

	가정내 사회자본	양육 효능감	양육참여	한국어	모학력	자녀수	자녀연령
가정외 사회자본	.298***	.278***	.621***	.228***	.010	.053	-.120*
가정내 사회자본	1	.347***	.498***	.121*	.066	.031	.026
양육효능감		1	.553***	.239***	.037	-.150**	-.013
양육참여			1	.487***	.085	.093	-.146*
한국어				1	.024	-.011	-.049
모학력					1	.024	.038
자녀수						1	-.063

*p<.05, **p<.01, ***p<.001

3) 측정모형의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에 앞서 잠재변인들의 측정지표로 설정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정상성의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사회자본, 가족관계, 양육참여, 양육효능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지표들이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표 3〉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NFI	CFI	TLI	RMSEA
측정모형	172.35(df=71, p=.000)	.926	.955	.942	.056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의 결과는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NFI, CFI, TLI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가 .055로 나타난 비교적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지표들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지표가 p<.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측정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잠재 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가정외 사회자본	사회자본1	.390***	.310	.081
	사회자본2	.635***	.582	.098
	사회자본3	1.000	.713	
가정내 사회자본	가족관계1	.981***	.922	.035
	가족관계2	1.000	.908	
	가족관계3	.597***	.647	.037
	가족관계4	.620***	.708	.034
양육 효능감	양육효능감1	1.000	.825	
	양육효능감2	.743***	.705	.048
	양육효능감3	.878***	.785	.050
	양육효능감4	.862***	.761	.051
양육 참여	양육참여1	.472***	.319	.098
	양육참여2	1.000	.578	
	양육참여3	.533***	.282	.122

***p<.001

4) 구조모형의 분석

가정외 사회자본과 가정내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참여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5〉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N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268.90(df=123, p=.000)	.892	.937	.922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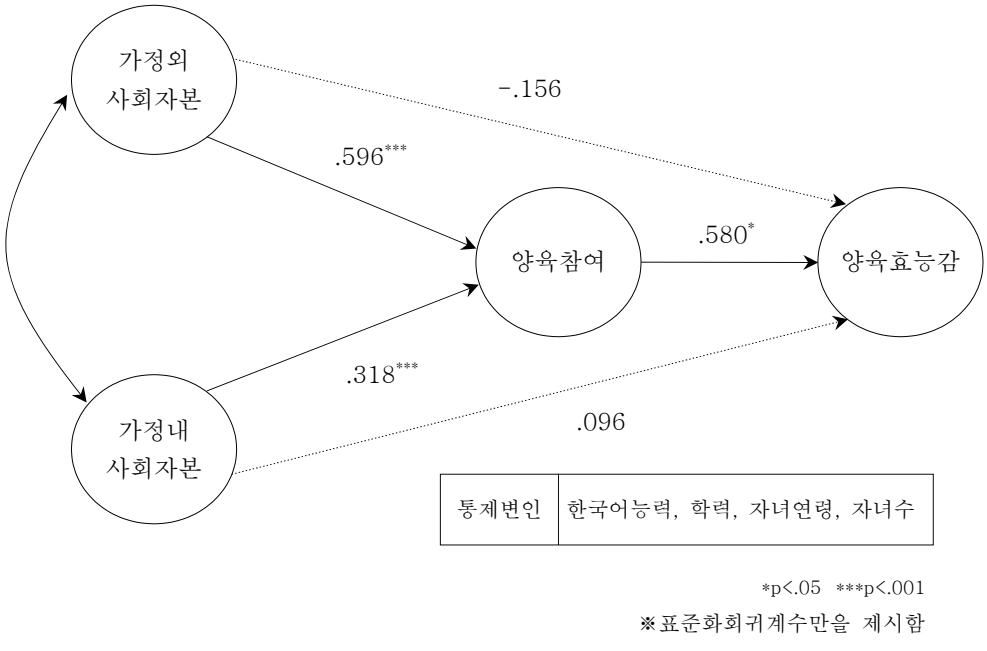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NFI, CFI, TLI, RMSEA 모두 모델 적합도 기준에 부합되어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변인간 관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양육효능감 ← 가정외 사회자본	-.177	.210	-.156
양육효능감 ← 가정내 사회자본	.077	.080	.096
양육참여 ← 가정외 사회자본	.493***	.092	.596
양육참여 ← 가정내 사회자본	.185***	.045	.318
양육효능감 ← 양육참여	.798*	.404	.580
양육효능감 ← 한국어능력	.079*	.035	.109
양육효능감 ← 학력	.001	.004	.008
양육효능감 ← 아동연령	.005	.041	.006
양육효능감 ← 자녀수	-.105***	.028	-.173

*p<.05, **p<.01, ***p<.001

구조모형에 포함된 주요 경로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가정외 사회자본과 가정내 사회자본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참여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내외의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지며 이러한 양육참여를 통해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정 내외의 사회자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회자본이 양육참여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p<.05 ***p<.001
※표준화회귀계수만을 제시함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또한 연구모형에 포함되었던 통제변인 중 한국어능력과 자녀수는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연령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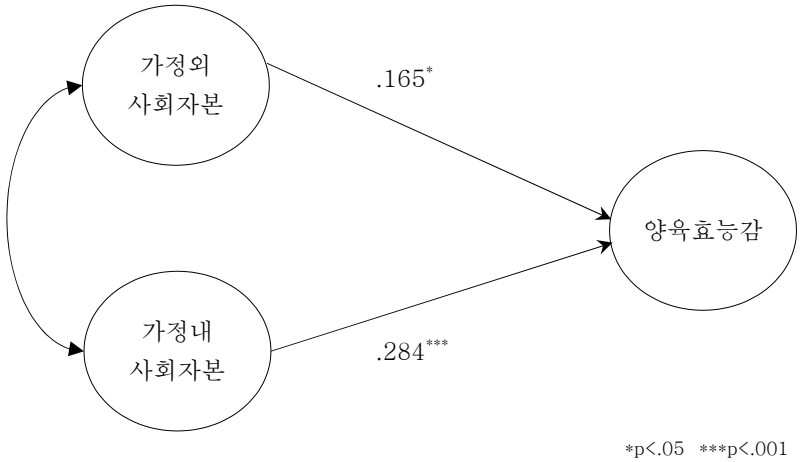
5) 주효과모형과의 비교분석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매개변인을 제외한 주효과 모형, 즉 가정외 사회자본과 가정내 사회자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경로로 설정한 모델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표 7〉 주효과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N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209.87(df=81, p=.000)	.908	.941	.923	.059

주효과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나 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효과모형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p<.05 ***p<.001
※표준화회귀계수만을 제시함

〈그림 3〉 주효과모형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가정외 사회자본과 가정내 사회자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정내 사회자본과 가정외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정외 사회자본보다

가정내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변인들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련성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주효과모형의 경로계수

변인간 관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양육효능감 ← 가정외 사회자본	.189*	.078	.165
양육효능감 ← 가정내 사회자본	.228***	.043	.284
양육효능감 ← 한국어능력	.079*	.035	.170
양육효능감 ← 학력	-.011	.012	-.044
양육효능감 ← 아동연령	-.010	.042	-.011
양육효능감 ← 자녀수	-.096***	.028	-.157

사회자본의 주효과모형을 앞서 제시한 매개효과모형과 비교해 보면 사회자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매개효과 모형에서는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개변인인 양육참여의 완전매개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자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참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시사한다. 즉 사회자본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의 양육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게 되며, 이러한 참여경험이 양육효능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6) 매개효과 분석

매개변인인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각각 확인하고 그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표 9〉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분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표준화계수	(95% CI)	표준화계수	(95% CI)	표준화계수	(95% CI)
가정외 사회자본	-.156	(-1.703 ~ .196)	.346*	(.068 ~ 1.943)	.190*	(.042 ~ .353)
가정내 사회자본	.096	(-.467 ~ .280)	.185*	(.030 ~ .803)	.281*	(.146 ~ .413)

* p<.05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외 사회자본과 가정내 사회자본 모두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총효과 중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95% 유의도 수준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효과모형과 매개효과모형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검증한 완전매개효과를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것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가족관계내에서의 사회자본과 다른 학부모나 학교체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의 참여나 도움의 제공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고, 이러한 양육참여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자녀양육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 있어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사회관계망을 형성,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반영하는 변인으로 사회자본에 주목하고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을 가정내 사회자본과 가정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이들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양육참여를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은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매개변인이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사회자본에서 양육효능감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참여의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양육, 특히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어서, 사회자본을 통한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결혼이주부모의 적극적인 양육참여 혹은 교육적 관여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산물이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박현선 외, 2012; 이엄지·이채원,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참여가 자녀의 발달산물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산물인 양육효능감도 높인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양육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적 역할의 부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선행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 관련요인을 주로 양육스트레스나 사회적지지 등으로 설명하였는데(김도희 외, 2007; 신숙재·정문자, 1998),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한 적극적 양육참여의 향상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지지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지지적으로 느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인 반면 사회자본은 개인이 사회관계망을 얼마나 형성하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지지를 받은 경험이 없어도 잠재적으로 동원가능한 자원이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효능감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학부모

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자녀의 학습지원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양육효능감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적 행동을 통해서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결혼이민자의 경우,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적 행동을 통한 성공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자본의 형성이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 이주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자녀양육과정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하겠다. 어린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험이 주로 다른 가족원들에 의해 양육주도권을 빼앗기거나 주요 의사결정등에서 소외되는 경험이라면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의 양육과정에서는 정보의 부족과 사회적 지원의 제한 등으로 인한 효능감의 저하가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의 교육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적극적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자본, 특히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참여나 부모와 학교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관계망 형성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에서의 정보제공 및 지지망 형성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고 참여의지도 있지만 낯선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언어적 문화적 배경의 이질성으로 인해 학부모로서 자신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먼저 다문화가정 부모의 적극적 참여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의 이주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나, 다른 한국인 학부모와 멘토링 관계를 형성시키는 등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결혼이주민의 참여적 활동 유도는 이들의 건강한 부모역할 효능감의 향상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머니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와 가정환경을 조성해야만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사회적 적응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강한 자녀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개선과 다양한 가족지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접촉의 기회를 가지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강인옥, 2009, “결혼이민여성의 부모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도희·박영준·이경은, 2007,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경로분석”, 『농촌사회』, 17(2): 41-73.

김동윤・오소윤 역, 2008, 『사회자본』,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미숙, 2009,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경·이정향, 20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근린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2): 163-175.

김지현·오진아·윤채민·이자형,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2(1): 46-60.

김현경,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29-254.

나금실, 2011,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자본과 취업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35-454.

나동석·박종인, 2008,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2(4): 525-546.

노연희·이상균·박현선·이채원,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대한 연구: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복지학』, 64(2): 159-183.

박선민·김태현,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99-122.

박소은·이채원, 201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7: 359-384.

박순희·이주희·안효자·조원탁, 2010, "국제결혼이주가정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185-217.

박진영, 2009,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어려움과 교육참여 경험", 『평생교육학 연구』, 15(2): 77-104.

박현선·이채원·노연희·이상균, 2012,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이중문화적 양육환경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서덕희, 201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종단적 사례연구: 학력에 따른 아비투스와 문화접변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5-81.

송미경·지승희·조은경·임영선,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숙재·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신원영·강현아, 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안우환, 2006,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19(1): 217-235.

안우환·김경식, 2005, "가족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연구』, 53(1): 29-50.

양숙경·문혁준, 2009,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7): 59-71.

양시내·김우영·김영옥, 2013,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71-94.

양인숙·김선혜,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1): 237-266.

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다문화가족정책과(2013. 7. 5. 보도자료).

오만석, 201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 여섯 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4(1): 43-77.

윤명숙·이해경, 20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32: 103-135.

이민경·김경근, 2010, “이주가정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욕구: 자녀교육 욕구 표출양상과 의미화”, 『교육사회학연구』, 20(2): 129-156.

이봉주·김선숙·김낭희, 2010, “한국아동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가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이엄지·이채원, 2014,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유대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9: 433-455.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이은하, 2010,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권에 다른 부모-자녀 관계 이야기: 경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4(3): 109-129.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73-91.

이채원·김윤화·김은령·임성철 역, 2014, 『동기면담과 사회복지실천』, Hohman, M., 2012,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Social Work Practice*, 서울: 학지사.

이채원·박현선·노연희·이상균, 2013,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역할 찾아가기 과정 -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41: 251-279.

전경하·송순, 2013, “가족 내외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연구 -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1): 143-165.

최명선·곽민정, 2008,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Cheung, C., Lam, C., and Ngai, S., 2008, “Help from the parent-teacher association to parenting efficacy: Beyond social status and informal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 1134-1152.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Glanville, J., and Bienenstock, E., 2009, “A typology for understanding the connections among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1): 1507-1530.

Hudson, W. W., 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WALMYR Publishing Company.

Lancee, B., 2010, “The economic returns of immigrants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 202-226.

Manuel, R. L., 2003, "Re-conceiving student departure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The roles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Morrison, E., 2002, "Newcomers'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al network ties during soci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6): 1149-1160.

Oseguera, L., Conchas, G.Q., and Mosqueda, E., 2011, "Beyond family and ethnic culture: Understanding the preconditions for the potential realization of social capital", *Youth & Society*, 43(3): 1136-1166.

Ryan, L., Sales, R., Tilki, M.,and Siara, B., 2008,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The experiences of recent Polish migrants in London", *Sociology*, 42(4): 672-690.

Zontini, E., 2010, "Enabling and constraining aspects of social capital in migrant families: Ethnicity, gender and gene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33(5): 816-831.

Impact of Social Capital on Married Immigrant Women's Parenting in South Korea*

Rhee, Chaiewon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married immigrant women's parenting,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particip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cial capital within and outside of the family were examined in their relations to parenting efficac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participation was analysed. Study participants were 459 immigrant women from the Gyeonggi Education Welfare Panel(2011), who had children in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Findings suggested that social capital within and outside of the family had significant impact on parenting participation, which in turn affected parenting efficacy. Direct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parenting efficac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a full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participation.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social policy for this popul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capital, parenting participation, parenting efficacy, mediation effect

〔논문 접수일 : 15. 01. 09, 심사일 : 15. 01. 15, 게재 확정일 : 15. 02. 06〕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28-B00044)